

현대교회건축의 특성에 관한연구* - 안도 타다오를 중심으로 -

이규백
산업디자인전공

A Study of the Character of Contemporary Church -focused on Ando Tadao-

Lee, Gyoo-Baek
Dept. of Industrial Desig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교회건축은 시대에 따라 혹은 신학의 변천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하며 예배의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예배공간의 구성과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인정받던 교회건축은 이제 더 이상 그 시대의 대표성을 띠지도 못하며 기독교가 가지는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에도 미진한 점이 많이 있다. 또한 지역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가 결여됨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배공간은 예배의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규모 강당 혹은 관람석과 같은 유형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종교적인 정체성의 표현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건축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교회건축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 디자인적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교회건축의 디자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속적인 연구로서 이번 연구에서는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자한다.

안도 타다오는 자신만의 독특한 공간구성의 원리와 건축 재료의 사용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가이다. 그의 건축은 장식이 배제된 공간의 본질적인 것을 깊이 있게 탐

* 이 논문은 2001년 울산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구하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절제된 공간의 형태와 마감재의 사용 그리고 공간의 균질성 등에서 서구의 미니멀리즘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서구의 현대건축에서 느낄 수 없는 인간적이고 풍부한 감성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지극히 동양적인 감각과 사고를 가지고 서구정신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기독교 교회건축을 구현한 그의 교회건축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방법

안도 타다오는 로꼬 교회(1986년), 물의 교회(1988년), 빛의 교회(1989년)와 같은 3개의 교회건축과 2000년 교회를 위한 설계경기 출품안인 1개의 계획안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일관된 작업경향에서 보여주듯이 공간의 본질에 대한 집착과 구현을 바탕으로 종교적인 정체성의 표현에 독특한 조형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교회들 중 지금까지 건축되어져 있는 3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장소성과 이미지, 전이공간, 빛과 그림자, 상징성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는 공간, 시간적인 제약에 의해 국내, 외에 출간된 안도 타다오의 작품집을 중심으로 하였다.

2.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

2.1 로꼬 교회

로꼬 교회는 1,000m 높이의 로꼬산 정산 부근의 경사진 녹지에 위치하고 있다. 교회는 예배당, 종탑, 지붕이 있는 열주, 그리고 경관의 한 부분을 확고히 차지하는 정원의 자립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는 콜로네이드를 기준으로 45도로 배치된 계단을 통해 오른 후 부채꼴 형태의 마당에서 단변이 2.7m이고 장변이 40m인 선형의 콜로네이드를 통해 교회로 진입할 수 있다. 반 투명유리로 덮인 주랑 공간을 통과하면서 신도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교회의 성스러운 세계 속에 빠져들게 된다. 주랑의 맨 끝은 열려 있어서 숲과 먼 바다의 장관을 바라볼 수 있다. 태양 빛은 반 투명 유리를 통과하면서 부드러워지고 걸러져서 가늘고 긴 주랑 공간을 고르게 채운다. 부드럽고 허공에 떠다니는 듯 한 분위기의 주랑을 지나면 예배당이 나오는데 이곳은 반대로 직사광선이 방향성을 가지고 내리쬐다. 이 교회의 주제는 그림자와 빛의 연속 즉 빛과 어두움의 대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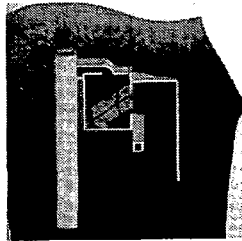
예배공간은 그의 일반적인 건축어휘인 지극히 절제되어진 단순함을 보여주고 있다. 좌측에 있는 큰 창을 십자로 나누는 기둥과 보는 태양빛을 받아들여 바닥에 뚜렷한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만든다. 자재를 콘크리트, 돌, 철, 유리로만 한정된 이 단색의 공간은 외부의 초록빛을 실내로 끄어들여서 내부풍경으로 만들어 자연의 깊이를 더한다.¹⁾ 출입자들은 예배공간 후면의 출입구를 통해 예배공간으로 접근하게되고 진입부의 바닥이 전면의 계단부 보다 높은 계단식의 형태를 지닌다. 예배공간은 노출 콘크리트의 표면이 주는 검소함과 엄격함을 나타내고 있다. 바닥재료는 사암이 사용되었다.

1) 건축디자인, Tadao Ando, 1998, p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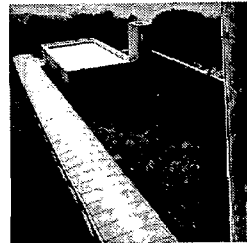
예배공간에 유입되는 빛은 교회의 긴 회랑에서의 은유적인 빛 보다 직접적인 빛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제단 상부의 톱라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빛은 예배공간에 신의 계시와 임재를 의미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개방된 창을 통한 빛은 인간과 자연의 일치와 교감이라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도하고 제단 상부의 빛은 신과의 만남이라는 수직적인 관계의 형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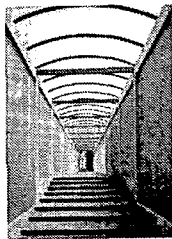
예배공간에서 사용되는 상징은 직접적인 표현으로서의 십자가 형상이다. 좌측 창틀 형식의 십자가는 개구부의 면적인 분할이라는 조형적 역할에 더하여 십자가의 직접적인 형상화를 나타낸다. 그 구성의 비례에서는 일반적인 십자가보다는 베드로가 달려 죽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꾸로 박혀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준다. 전면 제단부의 십자가는 철구조물로 되어있는 매우 가는 모양이다. 이 십자가는 천창으로부터의 빛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둠과 밝음의 상반되는 효과를 부여하고 와이어에 달려 공중에 떠있는 형태는 극적인 긴장감을 만들고 있다.



<그림 1> 로코교회 평면도



<그림 2> 로코 교회 전경



<그림 3> 진입부 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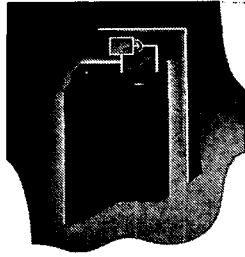
<그림 4> 예배 공간

2.2 물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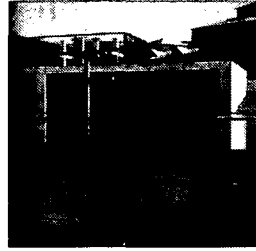
물의 교회는 일본에서 가장 추운 지방인 북해도 중앙산맥의 한 고원에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은 봄과 여름에는 온통 초록으로 뒤덮여 있다가 겨울에는 끝없는 순백의 세계로 변한다. 이 교회는 토맘 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건물은 근처에 있는 물의 극장과 남·동방향으로 약 400m정도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있고 이러한 두 건물은 같은 강에 접해 있어서 물에 의해 연계되어 있다. 교회의 진입은 건물을 우회하면서 건물과 인공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L 자형의 자립벽을 따라 접근하게 되는데 진입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물을 볼 수 없지만 물소리는 들을 수 있다. 그러한 자립벽을 돌아 180도 회전하면 눈앞에 수면이 전개되며, 물소리를 들으면서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면 유리로 둘러싸인 건물입구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진입방법은 방문자에게 기대감을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종교적인 의미에서 성스러운 공간에 도달하기 위한 속의 세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배당은 평면상으로 크고 작은 두 개의 겹쳐진 정사각형으로 구성되고 주위의 흐르는 시냇물을 끌어 들여 만든 인공연못의 가장자리에 있다. 예배공간은 단순한 입면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예배공간에 들어서면 다시 한번 평온하게 펼쳐진 연못과 물위에 솟아있는 큰 십자가가 제단 유리벽을 통해 보인다. 연못을 향해 벽면 한 면을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공간의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유리벽은 미닫이문처럼 전체를 옆으로 밀수가 있어서 교회가 순수한 자연그대로의 연못으로 열리는 효과를 볼수 있다. 사람들은 여기서 물소리, 나무의 향기 새들의 노랫소리들을 통해 직접 자연을 만나게 된다. 개구부를 통해서 보는 자연과 흐르는 물은 종교적인 엄숙함과 평안을 부여하고 있다. 바닥재료는 검은 사암을 사용하였고 벽면은 노출 콘크리트이다.

물의교회에서 빛은 보편적인 은혜로서의 빛으로 표현되고 있다. 전면창을 통해 내부공간으로 가득히 밀려오는 빛은 무소부재의 신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이곳에서 상징은 예배공간내부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상징의 사용이 아니라 전면 창을 통해 보이는 외부의 연못위에 우뚝이 솟아 있는 십자가이다. 십자가 주위를 흐르는 물은 예수가 그 공생애를 보냈던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거나 인간이 건너야할 요단강을 의미한다. 물의교회에서는 주간의 태양광의 효과 뿐 아니라 야간의 인공조명에 의한 효과를 고려한 설계를 하였다. 젓빛 반투명 유리에 사방이 둘러싸인 어프로치는 빛의 상자이며 강력한 직사광과 부드러운 투과광이 뒤섞이며 사람들은 빛의 홍수에 잠긴다. 이 빛의 미묘한 콘트라스트가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엄숙한 생각을 유발한다. 이 빛의 상자는 야간에는 인공 조명에 의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뿜어내는 상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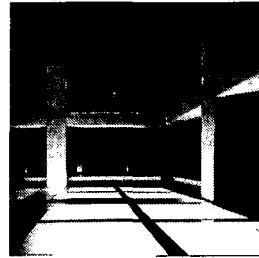
<그림 5> 물의 교회



<그림 6> 물의 교회 전경



<그림 7> 예배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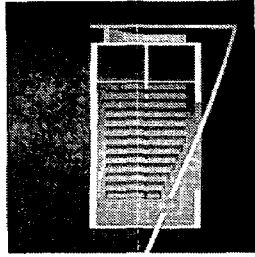


<그림 8> 진입부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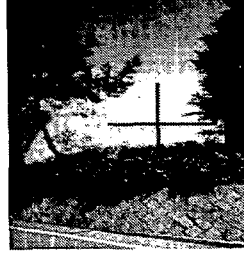
2.3 빛의 교회

빛의 교회는 오사카 교외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의 목조교회와 목사관이 있는 부지에 증축된 건물이다. 건물의 배치는 기존건물과의 맥락과 채광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교회의 진입은 도로로부터 기존의 교회를 통과한 후 원호형태의 경사로를 지나서 새롭게 계획된 교회건물보다 높이가 18cm 낮은 15도 기울어진 자립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벽은 교회의 출입구와 내부공간을 분절하며 자립벽에 의해 형성된 폭 1.6m 높이 5.35m의 개구부를 통하여 180도 반전하면서 진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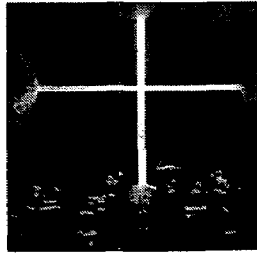
직육면체 모양의 교회는 예배당과 출입구를 분리하는 벽에 의해서 15도 각도로 잘려져 있다. 제단벽에 뚫린 십자가 모양의 슬릿을 통해 빛이 깊숙한 어둠을 뚫고 스며든다. 바닥과 회중석은 거친 비계판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경제적이며 공간특성에 매우 잘 어울린다. 사람들의 손이나 발에 접촉되는 부분에 주로 사용된 천연재료는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이 건물에 적용되는데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빛은 어두움을 배경으로 있을 때에만 그 영롱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개구부는 절제되어 있다. 자연의 존재는 또한 빛이라는 요소로만 제한 되었고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묘사되었다. 이와 같은 추상성에 대응해가면서 건축은 끊임없이 더 순수해진다. 태양광선과 빛의 각도에 따라 움직이는 십자가 형태에 의해 바닥에 형성된 직선형태는 순수와 함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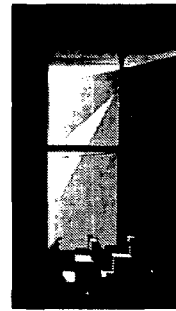
<그림 9> 빛의 교회 평면도



<그림 10> 빛의 교회 전경



<그림 11> 예배공간



<그림 12> 빛과 그림자

3. 안도 타다오 교회건축의 특성분석

3.1 장소성과 이미지

모더니즘의 가치관을 따라 만들어진 건축은 균일화와 획일화로 향하면서 개성의 상실을 초래하였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건축의 개별성으로 개별성의 창조는 현대건축의 주요테마이기도 하다. 이런 흐름에서 장소가 아닌 고유성-장소성은 모더니즘에 대체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건축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건축의 장소성은 의미와 형식으로 해체되면서 생활행위와 주체 그리고 공간의 관계에 의해 상호적으로 환기된다. 즉 형식은 의미에 의해 불러 일으키지며 의미는 형식에 의해 평가되어 가치를 띠게 된다.²⁾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은 그 대지가 자연의 일부로서의 대지의 형상과 주변의 환경에 순응하는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그의 건축 형태적인 특성은 장소에 구애 없이 일관적인 형태추구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장소성은 대지의 형상에 대한 맥락적인 해석을 주로 사용

2) 이영일, 장소성의 창조-그 의미와 형식, Plus, 9507, p148

하고 있다. 즉 절개 되어진 경사면의 이용이 아니라 대지의 고·저차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연 순응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안도 타다오의 건축을 이해한다는 것은 건축의 장소성을 의미와 형식에 의해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있다. 최근의 작품을 보면 자연 속에 묻혀 자연과 건축이 서로 자극하면서 일체와 되어 있다. 즉 건축이 그 자체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에 의한 의미가 건축을 특징 짓고 있다. 이처럼 자연 속에 위치하는 건축은 기존의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뜻이 내포되어 건물의 볼륨이 억제되고 있으며 건축의 상부를 무대로 만들고 있다.³⁾

안도 타다오는 종교건축에서도 일반적인 그의 조형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축가들에게서 종교건축은 새로운 형태를 통한 표현방식이 주로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안도의 경우는 그에게서 공간의 용도는 형태 구성의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공간의 내면적인 성격 즉 공간의 본질적인 개념을 충실히 구현함으로써 원하는 공간 혹은 건축의 이미지를 표현하려는 공간 중심의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축의 원점에 회귀하는 개념적 건축에 의해 대담성을 느끼게 하며 합리성과 효율성을 초월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인식시키고 있다. 억제된 도입부, 공간분절의 과정적인 접근, 최종적인 풍경의 다이내믹에 의한 공간체험을 인간의 정신에 응하는 건축공간으로 수렴한다.⁴⁾

3.2 전이공간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에서 전이공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서구의 교회건축은 외부와 내부의 공간의 전이의 영역으로서 입구의 엔터런스나 .홀을 통한 순간적이고 직접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안도의 교회건축은 동양의 사찰건축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공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국내에서도 김수근에 의해 경동 교회 등에 적용되어진 수법으로 일상적인 속의 세계로부터 성스러운 세계로 향하는 구도자의 심리적인 준비과정과 그를 통한 속에서의 일탈과 성으로의 전이를 의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안도는 항상 건물의 도입부를 최단거리의 동선에서 벗어나 회유시킴으로서 주위의 풍경을 다양한 변화와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

공간구성은 시간성에 의해서 연결된 장면을 종합하여 인간의 감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지에서 재료의 투명성을 획득하는 방법이며 공간이라는 추상적인 존재에 변신하는 순간을 체험하게 하며 건축은 재료를 겹쳐 쌓으면서 저절로 생긴 형식을 체험하고 음악과 같이 벽이 만들어 내는 공간의 울동감을 느끼는 체험의 총체이며 시각이나 촉각 오감을 넘은 직관을 자극하는 방식을 취한다.⁶⁾

로꼬 교회에서는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긴 회랑을 지남으로 그 다음에 전개되어질 공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심리적으로 속의 공간을 거쳐 사죄 혹은 은혜의 공간이라는 어두움과 빛이 공존하는 성의 공간으로서의 전이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였다.

물의 교회에서는 자립벽을 따라 안쪽으로 유도되면서 자연과 벽으로 둘러싸인 물의 공

3) 이영일, 장소성의 창조-그 의미와 형식, Plus 9507, p148

4) 이형일, 안도 타다오, 가능성을 찾아서, Plus 9606, p142

5) 이영일, 안도 타다오, 가능성을 찾아서, Plus 9606, p149

6) 高山止雄, 벽의 탐구-Tadao Ando, 제6장 벽의 미학-공간의 정신분석, 1994

간과 만나게 된다. 건축구성에 있어서 둘러싼다고 하는 것은 내부와 외부라고 하는 경계의 감각을 생기게 하면서 장소를 인식하게 한다. 또한 공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공간에 둘러싸인 안도감을 느끼게 하며 체험자가 장소를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물위의 십자가를 마주보게 된다. 이러한 극적인 장면의 연출은 중심이라는 방향설정에 의해 공간을 구조화하여 주위의 공간을 끌어 모음으로서 장소의 감각을 강조하게 된다.

빛의 교회에서는 그 대지의 제한적인 요건 때문에 짧은 동선 상에서 내부공간과 교체되는 직립벽을 통해서 공간의 전이를 강하게 의도하였음을 볼 수 있다. 자립벽은 속의 공간과 성의 공간의 절대적인 분절을 의미하며 이 벽을 따라 진입하는 과정은 특별한 종교적인 사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공간의 마지막에서 출입구를 통해 교회내부로 진입하면 공간은 처음의 진입 방향과는 180° 반전된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안도 타다오에게서 전이 공간은 속의 공간에서 성의 공간으로의 시간적, 공간적인 연결수단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사유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즉 속의 공간에서 성의 공간으로의 반전을 통해 종교적인 체험을 유도하고 실제적인 예배행위가 이루어지는 예배 공간에 대한 경외감과 신성감의 강조를 보여주고 있다.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에서 각각의 교회는 유사한 형식의 자립벽을 따라 진행하다 방향의 극적인 전환과 함께 예배공간이 드러나고 그 공간은 빛-어두움-빛이라는 일련의 시퀀스를 가진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그의 공간구성 수법인 스토리성의 종교적인 변용으로 보인다.

“나의 건축은 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스토리성에 의해 다음에 전개되는 공간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공간체험을 과정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건축을 체험한다는 것은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의 예상을 빛나가게 하여 감동의 차원을 크게 부여한다.”

3.3 빛과 그림자

빛은 비물질적인 실체로서 그 현상을 드러낼 때 빛을 받는 소재와 형태 및 기타 제한 조건들과 상호 작용하여 조형적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창출하며 그 시각적 효과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독교에서 빛은 곧 하나님의 나타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 건축에서는 어두움을 밝히는 물리적인 요소로서의 빛에 더하여 신의 계시 또는 현시, 신의 임재의 현상으로서의 빛을 의미하고 있다.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나타난 많은 유형의 건축공간은 빛을 통한 신의 표현이라는 개념의 형상화를 실현하고자 노력 하여왔다.

안도의 교회건축에서 빛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사용되고 또 실내에 도입되고 있다. 로꼬 교회에서 빛은 죄사함의 매개체로서 진입부인 긴 회랑에서 사용되었다. 균질하게 들어오는 빛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은혜와 속죄함의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예배공간에서는 실내로 도입되는 빛을 십자가를 형상화한 구조체를 통해 4등분하여 도입하고 있다. 실내로 도입되는 실제적인 형상으로서의 빛에 부가하여 그림자를 생성함으로써 종교적인 성스러움과 상징성을 강하게 유도하고 있다. 물의교회에서는 전면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이외에 야간에 조명으로 인한 전반적인 빛의 도입을 시도함으로써 종교적인 영원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로꼬 교회와 물의 교회에서 빛은 배경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체험적 요소

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빛은 십자가를 비춤으로서 예배공간과 교회주변에 그림자로서의 십자가를 만들고 또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 모양과 방향, 크기를 변화시키고 있다. 빛의 교회에서 사용된 빛은 그 도입 방법부터가 매우 적극적이고 강렬하며 공간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안도의 빛의 철학은 공간에 있어 변화의 상자속을 사선 15°의 빛의 관을 통과시킴으로서 정적인 공간에 동적인 요소를 의도적으로 첨가하여 정중동의 변화추구와 대지의 협소함에 의한 공간의 단편성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의 다양한 분절을 통하여 드라마틱한 연출을 한다. 경사진 빛의 관은 완전히 벽과 천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침묵의 공간 내에서 조용한 울림을 전해주고 있다. 교회내부에서 빛은 크게 제대정면에 있는 십자창과 매스와 판의 교차에서 생겨나는 측면창, 경사진 판과 천장과와의 분리에 의한 빛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빛의 효과는 더욱 종교적인 숭고한 공간으로 의식화한다.⁷⁾

빛을 통해서 안도는 공간의 물리적인 효과 속에서 느끼기 힘든 감정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의 가치를 보여 주었다.⁸⁾

3.4 상징

기독교 건축의 전성기인 고딕시대는 교회건축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많은 상징과 장식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근대주의 건축의 등장으로 장식은 죄악시되었고 오늘날이 장식에 배제된 단순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등장 하였다. 물론 현대에 와서 포스트 모던 건축의 등장은 장식이나 상징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였다. 현대의 교회건축에서는 그 신학적인 차이점으로 인해 천주교회는 고딕식의 상징과 장식을 교회건축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개신 교회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안도 타다오는 교회건축에서 십자가의 직접적인 도입이외의 상징적 요소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완성되어진 내·외부 공간에 부가적으로 사용되어오던 기존의 방법을 벗어나 공간의 구조적인 형태를 십자가의 형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간의 일체감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로꼬 교회에서는 창고 구조적인 형태와 전면의 메달린 십자가를 사용하였고 물의교회에서는 예배공간을 벗어나 전면의 연못 위에 있는 십자가를 전면창을 통해 실내로 도입하였다. 빛의 교회에서는 기존의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벗어나 보이던 공간을 십자가로 형상화하여 그 곳을 통해 실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강력한 빛을 의도하고 있다.

안도의 교회건축에서는 빛이 기독교적인 상징을 형상화하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의 공간에서 보여지듯이 빛은 공간에 친밀감과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력의 원천으로서의 물리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대표적인 기호-상징체계인 십자가의 다양한 도입으로 종교적인 공간의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7) 최은영, 신정, 전결서, p525

8) 프랑소와 실링, 땅과 역사에 따라 처신한다- 안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Plus 9507, p153

4. 결 론

현대의 교회건축은 모더니즘의 매너리즘과 기독교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서 공간 본연의 의미 추구라는 일관된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안도 타다오의 교회건축은 장소성, 전이공간, 빛과 그림자, 상징의 사용이 주된 공간 구성의 요소들이다. 일반적으로 그의 건축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입방체의, 장식이 배제된 공간구성에서 종교적인 정체성의 표현을 위해 십자가를 상징적인 요소로서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방법은 공간의 본질적인 형태를 상징화함으로써 기존의 교회건축에서 보여지던 매너리즘적인 결과를 벗어나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안도 타다오는 현대건축에서 간과하고 있는 빛의 본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근대이전의 공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빛을 종교적인 요소로서 형상화하여 실내에 도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안도 타다오의 교회 건축의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안도 타다오 교회건축의 특성

분석의 틀	특성	적용대상
빛의 도입	빛의 형상화 (slit을 통한 빛-십자가의 형상화)	빛의 교회
	배경으로서의 빛	로꼬 교회 물의 교회
상징의 사용	은유적인 상징의 도입(negative)	빛의 교회
	직접적인 상징의 도입(positive)	로꼬 교회 물의 교회
공간의 개방성	폐쇄된공간(빛의 도입구를 통한 탈출심리유도)	빛의 교회
	개방된공간(자연속에거하는 신의 임재를 인식)	로꼬 교회 물의 교회
심리적 효과	내부 지향적인 예배의식	빛의 교회
	외향적인 예배의식	로꼬 교회 물의 교회
전이공간	공간의 극적인 반전	빛의 교회
	연속적인 시퀀스로서의 공간	로꼬 교회 물의 교회

참고문헌

1. 高山正雄, 벽 의 연구-Tadao Ando,1994
2. 안도 타다오 건축연구회, 안도 타다오 작품집, 기문당, 1989
3. 황준 역, 안도 타다오-그의 건축 이야기, 미진사, 1999
4. Tadao Ando, 건축디자인, 1998
5. 김준영, 실내건축 공간디자인에 있어 상징적 요소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1997
6. 최은영, 전성, Ando Tadao 건축의 연출적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발표논문집, 제18권 제2호,1998
7. 플러스 문화사, 특집 안도 타다오, plus 9507
8. 플러스 문화사, plus 9606